

조지아의 대러 경제 의존 확대와 시사점

박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문위원

조지아의 반(反)러·EU 지향 행보

조지아는 러시아 지배를 받은 역사로 인해,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이후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는 조지아 내의 친러 성향 분리 지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 군대를 유지하면서 조지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러시아에 대한 조지아의 반감은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의 전쟁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조지아의 리더십도 이런 기조를 보여왔다. 특히, 2004년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 집권 이후 친서방 정책이 본격화했다. 이후 2008년 8월 남오세티야에 조지아가 침공한 뒤 러시아가 이에 개입하면서 러시아와 조지아 간의 전쟁이 발발했고, 이를 계기로 조지아가 독립국가연합(CIS)에서 탈퇴했다. 당시 전쟁에서 러시아는 남오세티야 수도인 츠히발리에서 조지아군을 축출하고 조지아 전역에 대한 공습을 통해 개시 5일 만에 사실상 전쟁을 종료했다.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2013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조지아의 반러 정서를 선도했다.

한편, 조지아는 경제적으로 유럽연합(EU) 시장에 통합하기 위해 EU의 표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EU 지향 개혁 기조를 추진해 왔다. 2006년 이후 자국의 수입 관세를 대부분 폐지하고,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는 등 무역 원활화와 시장 자유화를 위한 급진 개혁 조치를 시행했으며 EU와는 2014년 9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을 체결하여 상호 관세를 폐지하고 교역 확대를 추진했다. EU와의 협정 체

결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와의 교역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조지아의 교역 구조는 EU 중심으로 재편됐으나 사실상 조지아의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17년 3월부터 쉥겐 조약 체결을 통해 조지아 국민은 EU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됐으며 궁극적으로 EU 시장과의 통합은 가속화됐다.



2022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전 조지아 대통령과 샤를 미셸 전 유럽 이사회 의장 (출처: 위키피디아)

안보 측면에서도 조지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하면서 장기간 활발히 협력해 왔으며 202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친서방 중심의 외교 관계를 구축해 왔다. 조지아는 1994년 3월 NATO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프로그램에 합의·참여했으며 2002년 11월에 정식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PfP 프로그램은 NATO와 비회원국 간의 안보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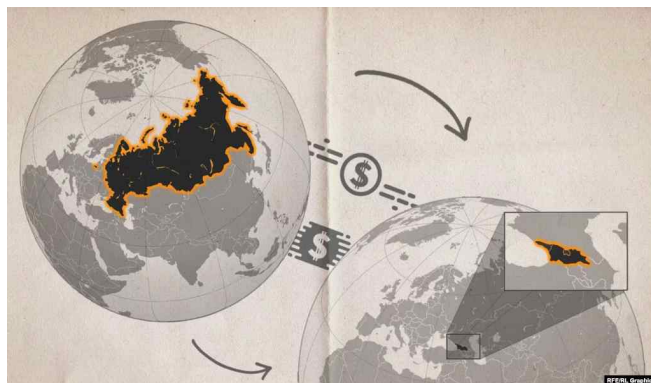
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 정책 수립, 국방 개혁, 군 교육·훈련 등에서 일련의 협력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조지아와 NATO는 양측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실질적 NATO-조지아 패키지(SNGP)’를 체결하여 협력을 공고화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양측은 협력을 계속해 왔으나 최근 조지아 정부가 ‘외국 에이전트 법’을 제정한 이후 NATO는 협력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화했으며 미국도 2024년 양국 간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조지아의 대러 경제적 의존

최근 서방과 조지아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긴밀해진 조지아와 러시아 간의 경제 관계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인들은 자국에서의 징집령 등을 피해 인근 유라시아 국가로 도피했으며 조지아는 주요 대상국 중 하나였다. 조지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 한 해 동안 조지아로 이주한 러시아인은 약 11만 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생활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도 트빌리시 또는 휴양 도시인 바투미를 중심으로 정착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면서 유입된 사람 중 일부가 다시 러시아로 되돌아가기는 했으나 러시아인의 유입은 규모가 작은 조지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조지아로 이주한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정보통신(IT)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로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력을 갖춘 집단이었다. 조지아는 경제 규모가 작아 자국에서 인력이 유출되는 두뇌 유출 현상이 일상화되어 왔으나 젊고 유능한 러시아인의 유입은 두뇌 유입 현상을 유발하여 조지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인들의 이주와 함께 자연스럽게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들어가는 송금이 늘어나고 조지아 내 러시아 기업의 수가 많아지며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15년 이후로 러시아의 조지아 송금은 연간 5억 달러를 넘는 적이 없었으며 전체 송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곧 감소세였으나 2022년 20억 달러, 2023년 1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절대 금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조지아는 외국 이주 자국민이 송금하는 금액이 국민총생산(GDP)의 약 10%를 상회하는 대외송금 의존도

가 높은 국가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송금 증가는 외화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러시아인들의 이주와 함께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들어가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출처: ekhokavkaza.com)

이렇게 유입된 자금은 조지아 내에서 러시아인들의 부동산 구매, 소비 활동 등에 활용되면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또한, 조지아 내에 신규 등록된 사업체 중 러시아인 또는 러시아 법인이 소유한 사업체의 수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14,977개와 11,552개로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지아의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세를 보이면서 조지아의 대러 경제적 의존이 확대되고 있다. 조지아의 대러 직접 수출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 금액은 약 4,800만 달러에 불과해 전체 조지아 수출 증가세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러시아의 중고차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며 조지아 정부가 미국 및 EU산 승용차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며 대(對)키르기스스탄 우회 수출이 급증했다. 조지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낮은 수입 관세와 지리적 이점 덕분에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중고차 재수출 허브 역할을 해왔으나 서방의 압력으로 인해 대러 재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대러 재수출이 막히게 되자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우회 루트를 통해 대러 수출이 증가했으며 2023년에만 금액 기준으로 6억 2,500만 달러에 달한다.

2024년에도 10월까지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승용차 수출은 9억 6,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러시아로 우회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선진국 중고차 수입의 관문 역할을 해오던 조지아의 역할이 대러 수출 확대에 극명하게 부각됐으며 향후 지속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지도부 교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러 제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서방 국가들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인 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등 대러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주요 우회 수출 경로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통한 재수출을 차단하고자 하나 이를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지아로서는 서방이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더라도 이를 회피하면서 현재의 수출 특수를 유지할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가 2022~23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자금 유입, 러시아에 대한 수출 증가 등이 크게 작용했다. 소규모 개방경제형 국가인 조지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당시 연간 GDP 성장률이 -6.3%였지만, 2021년에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10.6% 성장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 조지아의 GDP 성장률은 각각 11.0%와 7.8%를 기록하는 등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조지아중앙은행은 여기에 러시아 이민자들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2024년 11월까지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하여 전년과 비슷한데 이는 다른 유라시아 국가의 성장률에 비해 2~3%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의 자금이 유입되며 조지아 라리(lari)화의 평가절하를 방어하고 러시아 이민자들은 조지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비스 산업 성장 등의 성장에 이바지한 요인도 있었다. 투자·교역 흑자에 따른 달러화 자금 유입으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라리화는 절상되는 등 조지아의 금융시장도 안정됐다. 정부 외환보유고는 2022년 4월 33억 5,000만 달러에서 2023년 8월 50억 달러로 급했다. 또한, 러시아 이민자들의 약 2/3는 조지아에서 IT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입은 조지아 정부가 지향하는 IT 산업 육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로, 러시아인의 유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현지인과의 일자리 경쟁

등 일부 부작용 요인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갈림길에 선 조지아와 한국의 협력 시사점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은 2010년대까지 친서방 노선을 유지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친러 성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조지아의 꿈’은 2011년 친서방 그룹과 민족주의 그룹의 연합으로 창당한 이후, 2012년 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이 됐으며 이후 2024년까지 세 차례 총선에서 승리했다. 창당 초기부터 친서방 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2021년 친러 성향의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재취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지아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부각되면서 친러 노선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에 조지아는 동참하지 않았으며 인도적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러시아 경제 제재는 조지아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며 조지아와 러시아 간의 경제 관계 강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지아 트빌리시의 시위 장면 (출처: www.vedomosti.ru)

러시아는 조지아의 정책 변화에 대해 화답하는 입장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국민은 시위를 지속하며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조지아의 정책 변화에 대해 러시아는 2023년 5월 조지아인의 러시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이와 함께 양국 간 직항노선도 재개했다. 2024년 10월 총선에서 ‘조지아의 꿈’이 과반을 확보한 것으로 발표되자 친서방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민의 시위가 시작됐고, 이어서 정



부가 EU 가입 문제를 현안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격화되고 있다. EU 등 서방은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으며 2025년 1월까지 수백 명이 구금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11월 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향후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조지아 자체의 시장 규모는 크지 않으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캅카스 시장에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 EPA 타결을 통해 상품의 경우 한국은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며 그에 앞서 우선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신차, 중고차와 화장품, 음식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에 대한 조지아의 경제적 의존이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캅카스 시장 진출 관문 역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시장 등에 대한 한국 상품의 수출 루트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연대가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의 경우 조지아의 대리 직접 수출은 정체됐지만,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지아는 향후 중앙아시아 전반에 대한 수출의 다른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경제에 대한 의존적인 환경의 지속과 조지아 정부의 친러 성향 강화가 향후 조지아가 러시아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